

길림성—한국간 활발한 경제협력 위해 노력할 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장춘무역관 리성호 관장 인터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장춘무역관 리성호 관장

한국인 리성호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장춘무역관 관장이다. 중국 여러 지역 Kotra 관장으로 다년간 사업하면서 중한 간 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그는 양국의 밀접한 경제 무역 교류를 목격하였고 중국의 급속한 발전의 강력한 맥박을 느끼기도 하였다. 일전 온라인 상담회 방식으로 길림성—한국 간 무역 교류의 장을 마련해 기업인들로부터 환영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는 리성호 관장을 찾았다.

리성호 관장은 “2019년 설립된 Kotra 장춘무역관은 길림성과 한국 간 경제협력력을 추진하는 플랫폼입니다. Kotra는 현 84개 국가에 총 130개 해외무역관을 두고 있는데 중국에만 21개의 무역관이 있어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무역협력력을 특

히 중시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라고 말했다.

Kotra 장춘무역관에 들어서면 한국의 다양한 특산품들이 가득차있다. 장춘시의 상업 중심에 위치한 한국무역관의 주요 업무는 중한 양국 기업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기업간의 다양한 협력을 촉진하도록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다.

류창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리성호 관장은 광주, 북경 등지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2023년 장춘으로 파견됐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Kotra 장춘무역관에서는 길림성의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일상용품들을 소개하였으며 길림성 생산기업 특히 자동차산업 분야의 기업에 한국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중 장춘제 1 자동차공장과 관련 부

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한국의 소프트웨어, 신소재 생산 기업들을 소개했는데 성과도 좋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다년간 일하고 생활해오면서 중국의 급속한 발전을 목격한 리성호 관장은 중국의 발전 성과에 대해 감탄을 보낸다. 그는 “20년전, 한국의 일상용품이나 다른 제품은 중국에서의 경쟁력이 꽤 좋았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 원인은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중국 기업이 외국 시장에서 선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의 한국 상품 경쟁력이 이전만큼 강하지 않더라도 중한 양국 기업간의 협력 전망은

여전히 넓습니다. 기술특허 협력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 자율주행 등 산업이 중한 경제무역협력의 미래 새로운 성장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예측했다.

리성호 관장은 “예전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올해 일부분 활동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의향을 보이는 기업들이 일정하게 교류를 진행하고 나아가 더 깊은 료해가 필요하다면 다시 상대방의 공장을 방문하고 제품을 직접 보면서 제품과 품질을 직접 확인하도록 저희가 연결을 해줍니다. 얼마전에 조직했던 2024 Kotra 장춘무역관 소비자 상담회에서는 150여개 한국 기업들의 제품을 길림성 기업인들에게 소개해 한국 제품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었고 성과도 꽤 좋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리성호 관장은 장춘에 많은 중국 친구들이 있으며 가끔은 중국 친구들과 골프나 바드민턴을 함께 치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자전거를 타고 정월담이나 여러 공원을 찾아가 휴식을 취하곤 하는데 장춘시의 여러 상업거리에 다시 생겨난 ‘생기’를 보면서 리성호 관장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리성호 관장은 “길림성의 가장 큰 우세는 자동차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올해부터 우리 기관과 한국 기업이 길림성 기업과의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리라 믿으면서 길림성—한국간 활발한 무역을 위해 기업들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표했다.

/정현관기자



전자상거래 물류지수 연속 4개월 상승

중국물류및구매연합회에 따르면 6월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 물류지수는 114.8%로 성장률이 5월 동기 대비 0.9% 포인트 늘어났는데 연속 4개월간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항목별 지수에서 총업무량지수, 농촌업무량지수, 재고 회전률지수, 물류시효지수, 약속리행률지수, 만족률지수, 인원지수 및 원가지수 등이 전부 상승세를 기록했고 실제적재물지수가 소폭 하락했다.

총체적으로 보면 전자상거래 물류 총업무량지수가 크게 늘어났다. 6월 전자상거래 물류 총업무량지수는 132.9%로 전월에 비해 3.1% 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모든 지역 총업무량지수가 전부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서부지역의 상승률이 가장 두드러졌고 동부지역은 전국 평균 수준을 넘어섰다.

농촌 전자상거래 물류업무지수가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6월 농촌 전자상거래 물류업무지수가 132.1%로 전월에 비해 2.4% 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모든 지역 총업무량지수가 전부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그중 동부지역의 상승률이 가장 두드러졌고 동부 및 중부 지역이 전국 평균 수준을 넘어섰다.

물류시효, 만족률 지수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약속리행률, 인원 및 실제적재물 지수가 높은 선에서 파동을 보였다. 6월 물류시효 및 만족률 지수가 각각 102.6%, 102.2%를 기록해 연속 4개월 상승세를 실현했다. 인원지수도 0.3% 포인트 상승했고 약속리행률지수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재고회전률지수는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는 추세이며 원가지수가 소폭 상승했다. 6월 한달간 수요가 빠르게 상승하는 견인하에 재고회전률지수는 전월에 비해 0.7% 포인트 상승해 연속 3개월 하락하는 국면을 돌파했다. 원가지수가 전월에 비해 0.3% 포인트 올라갔고 기업의 원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선을 유지했다.

/경제참고보

드론산업 빠른 성장, 상반기 60만대 신규 등록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된 무인항공기(UAV)의 수가 급증하는 등 우리나라의 드론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민용항공국 송지용 국장은 일전 언론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 약 60만 8,000대의 무인항공기가 신규 등록됐으며 이는 지난해말보다 48%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송지용 국장은 같은 기간 무인항공기의 누적 비행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13만 4,000시간 늘어난 약 982만시간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저고도경제가 급속한 발전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또 우리나라 정부는 무인항공기부문의 기술 표준을 더욱 최적화하고 무인항공기 사용을 위한 지방정부의 인프라 계획 및 건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저고도 무인항공기의 통신, 항법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비행 활동에 대한 안전 관련 정책도 수립할 방침이다.

우리 나라의 저고도경제는 기술혁신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업정보화부 산하 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저고도경제 규모는 5,059억 5,000만원에 달했으며 2026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넷

조선업 3대 지표 동반 성장세 유지



우리 나라의 선박 건조량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올 1월~6월 우리 나라의 선박 건조량은 2,502만 DWT(선박 최대 적재량)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늘어난 규모이다. 신규 수주량은 43.9% 증가한 5,422만 DWT를 기록했다. 6월말 기준 수주 잔량은 1억 7,155만 DWT로 전년 동기 대비 38.6% 확대됐다.

공업정보화부 통계를 보면 1월~6월 우리 나라 조선업의 3대 지표인 건조량, 신규 수주량, 수주 잔량은 DWT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각각 55.0%, 74.7%, 58.9%를 차지했다.

/신화사

상반기 국내 소비 실적 량호...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

최근 발표된 상반기 경제보고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사회소비재 소매 판매 총액은 23조 5,9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해 소비시장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중 업그레이드류 제품 실적이 두드러지고 서비스 소비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전자상거래 모델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등 새로운 성장점의 소비 견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무발전연구원센터 시장경제연구소 전임 소장 왕미는 상반기 소비 실적이 전반적으로 전망치에 부합했다고 진단하면서 소비 규모가 계속 확대됐다는 사실과 함께 시장의 새로운 성장점도 눈여겨봐야 한다며 “성장점이 있다는 것은 한층 더 성장할 방향과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설비 업그레이드와 소비재 중고제품 보상교환판매 수요가 점차 방출되

고 있다. 올 상반기 규모이상 기업의 가전제품 및 음향기기 상품 소매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다. 6월 25일 기준으로 상무부 자동차 중고제품 보상교환판매 정보 플랫폼으로 접수된 자동차 폐차·업그레이드 보조금 신청 건수는 약 11.3만건을 기록했다.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소비재 중고제품 보상교환판매 정책이 주민의 소비 잠재력이 질서 있게 방출되도록 유도하며 자동차·가전 등 내구소비재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일정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6.18 쇼핑 페스티벌’ 행사 기간 전자상거래기업 경동이 20여개성, 시급 정부와 협력해 소비자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 결과 북경, 하북, 호북, 서안, 심수, 광주, 해남 등 7개성과 시의 가전 및 가구 중고제품 보상교환판매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가전제품 은 오프라인 유통업체 소매의구매장의 컴퓨터·통신·전자제품 중고제품 보상교환판매 주문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넘게 늘어났다. 서비스 소비 잠재력의 방출 역시 또 하나의 소비 성장점으로 떠올랐다. 동방금성 수석 거시엔널리스트 왕청은 올 1월~6월 서비스 소매액이 전년 동기보다 7.5% 확대됐다면서 사회소비재 소매판매액보다 3.8% 포인트 높은 증가률로 관광 등 서비스 소비 활력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국가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로동절과 단오절 연휴 기간 국내 여행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7.6%, 6.3%씩 증가하고 여행 비용도 12.7%, 8.1%씩 늘었다.

올 상반기 실물상품의 온라인 소매 판매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확대됐다. 라이브 커머스, 즉시 배송

소매 등 전자상거래 신모델의 빠른 발전이 온라인 소비 증가를 크게 견인했다. 국가통계국 무역외경통계사(貿易外經統計司) 우건훈 사장은 향후 소비재 중고제품 보상교환판매를 꾸준히 추진해 새로운 소비 잠재력을 끌어내고 주민의 소비력 제고에 주력하며 새로운 소비 성장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확대해 소비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발전연구원센터 시장경제연구소 전임 소장 왕미는 고품질 제품 및 서비스를 향한 주민들의 수요가 매우 크다면서 중앙과 지방 정부가 중고제품 보상교환판매 보조금 확대, 소비 세나라이 혁신 등을 공동 추진한다면 구매력이 왕성한 시가인 9월과 10월 등 소비 성수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층 더 끌어올려 올 한해 소비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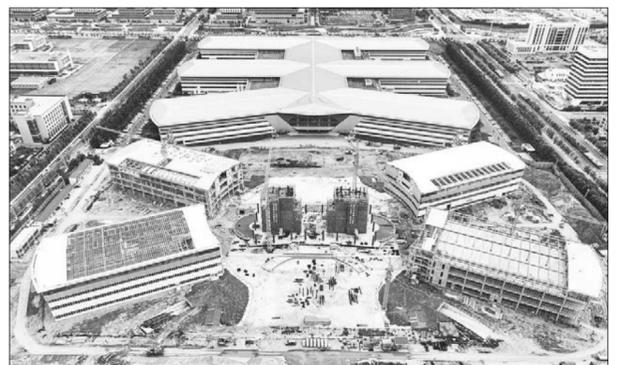
/신화넷

간추린 경제뉴스

- 제7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11월 5일-10일 상해서 7월 24일에 있던 제7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소식발표회에 따르면 박람회 준비 작업이 단계적 성과를 이룩, 50개 이상의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를 확정된 가운데 계약된 전시 면적은 36만평방미터가 넘는다.
- 6월 주택 가격 하락폭 축소 6월 국내 70개 중대형 도시의 주택 가격 하락폭이 전월 대비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연간 기준으로는 북경, 상해, 심수, 광주 등 1선 도시 기존 주택 가격의 하락폭도 완만해졌다.
- 상반기 인당 가처분소득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 올 상반기 우리 나라의 인당 가처분소득은 2만 733원으로 명목 성장률이 5.4%를 기록했다. 도시 주민의 인당 가처분소득은 4.6%, 농촌 주민의 인당 가처분소득은 6.8% 상승했다.
- 상반기 고정자산 투자 3.9% 확대 올 상반기 고정자산 투자는 24조 5,4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같은 기간 인프라 건설 투입, 제조업에 대한 투입은 지난해보다 5.4%, 9.5% 증가했으며 특히 하이테크산업 투자가 10.6%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투자는 10.1% 감소했다. 부동산을 제외한 상반기 국가 전체 고정자산 투자는 8.5% 확대됐다.

/신화사



총 투자가 25억원, 올 10월에 준공되어 사용에 들어갈 장춘 장광위성우주정보산업단지 2기 대상이 우주 원격탐지 데이터 응용 산업생태원을 구축해 우주정보산업기술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 부여하고 항공정보산업기술의 업그레이드를 이끌어내게 된다. 사진은 한창 건설중에 있는 장춘신구 북호미래과학성에 위치한 장광위성우주정보산업단지 2기 대상 공사 현장.

/길림일보